

■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서정성(민주·남구 2) 의원.

광주시의회는 23일 제207회 임시회를 열고 강은태 광주시장과 실·국 간부들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김선호(교육·서구) 의원은 광주학생독립기념관 도서관 건립문제와 광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MICE산업(비즈니스 관광) 육성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고, 서정성(민주·남구) 의원은 우치공원 명품화 사업 문제, 광주시의 투자유치 성과 및 대책을 따졌다. 이번 시정질문은 25일까지 이어지며 모두 6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광주학생독립기념관 도서관 반쪽되나

시교육청 증축 요구에 市 “재정상 어렵다”

김선호 의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건립중인 도서관이 반쪽 도서관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3일 현재 독립기념관 내에 건립중인 도서관(지하 1

층 지상 2층·사업비 170억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증축 요구에 대해 “재정상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선호(교육·서구) 교육위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 도서관이 도로변에 위치,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각

구 단위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추가 재원 투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도서관은 지난 1991년 동구 황금동 내 독립기념관을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이설에 맞춰 추진됐으나 결국 반쪽 도서관 개관이 불가피



김선호(교육·서구) 의원.

하게 됐다. 애초 시와 교육청은 도서관을 5층 규모로 짓기로 했으나 황금동 기존 건물 매각이 지연되면서 결국 2층으로 축소돼 2013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증축에 필요한 재원 80억원을 시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나 시가 거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4층 규모가 돼야 장서 보관에 열람실 등을 갖출 수 있다”며 “재원부족을 이유로 증축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결도는 관광산업 활성화·MICE 육성

자원조달 현실성 떨어지고 전문인력 태부족

김선호 의원은 이날 “광주시가 ‘제5차(2012~2016)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을 통해 도시관광 거점명소 개발, 도시근교 생태 녹색관광, 관광명소 연계 도시관광 ‘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조달 측면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며 광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MICE 산업 육성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 1134억원 중 지방비 부담액 432억원을 제외한 834억원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관광산업 특성상 민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민자유치가 어려워 이를 지방비로 충당할 경우 열악한 광주시 재정현황상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회의와 포상 관광, 전시·박람회 등 복합산업인 MICE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MICE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자립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또한, MICE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사능 ‘무대책’... 보호복 86% 무용지물

측정기 21대 불과 내구연한도 지나

김영남 의원

광주시가 보유한 방사능 보호복 10벌 중 8벌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남(민주·서구 2) 의원은 24일 시정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

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보유 방사능 보호복 39벌 중 86%인 34벌이 내구연한(5년)을 초과했고, 방사선량을 측정기 21대도 모두 연한(5년)이 지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보호복은 2002년과 2004년에 각

10벌씩 20벌을 구입했고, 이는 이미 사용횟수가 8~10년씩 된 것으로 내구연한을 2배가량 초과한 셈이다. 방사선량을 측정기도 2002년 16대, 2003년 5대 구입 이후 추가 구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김 의원은 또 광주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 장비가 휴대용 간이장비에 불과해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일본 원전사태 이후 지난해 4월 방사능 측정 간이장비를 구입해 100여 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며 “측정장비는 고가(3억원)인 만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차 검사하고 지자체는 간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동해’ 명칭 매듭짓나

IHO 총회 모나코서 개막... 청원서명 8만명 넘어

‘동해’의 국제 명칭을 결정하는 국제수리기구(IHO) 총회가 23일(현지 시각) 모나코에서 개막된다. 오는 27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 바다 지명을 규정하는 국제해도집에서 동해를 현행 일본해 명칭에 병기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동해 표기를 둘러싼 5년 만의 분쟁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해 표기 문제는 2002년과 2007년 총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됐으나 남·북한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이슈는 동해 표기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海道집 ‘해양의 경계’(S-23) 4판 발행 문제다. 정부는 개정되는 국제 지도에 동해

(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와 병기하는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합의가 있을 때까지 53년 3관대로 일본해 단독표기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IHO는 일제 시절인 1929년 동해를 일본해로 첫 공식 표기했으며, 1953년 발간된 S23 3판에서도 이를 유지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총회에서는 의장이 기존의 일본해 부분을 빈칸으로 남기거나 일본해 표기를 제외한海道집을 발간하자고 제의했으나 표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총회엔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등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독도수호국제연대도 IHO 총회가 열리는 동안 현지에서 동해 표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미국 백악관의 인터넷 민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오른 ‘동해표기’ 청원의 서명인이 한 달만에 무려 8만명을 넘어섰다. ‘동해, 우리 교과서의 잘못된 역사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청원에는 22일(현지시각) 오전 현재 8만3000여명이 서명했다. 이는 현재 이 사이트에 오른 민원 120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 서명으로, 2위인 ‘위조증거법 방지협정(ACTA) 폐기’ 민원의 서명자(4만 6600여명)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올랑드-사르코지 佛 대선 결선

르펜, 예상밖 지지율 3위

지난 22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위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내무부는 밤 11시(현지시각) 현재 85.16%를 개표한 결과, 올랑드 후보가 28.2%, 사르코지 대통령이 27.0%의 득표율로 1위와 2위를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는 18.6%를 득표해 3위를 차지했고, 좌파전선의 장-뤽 멜랑송 후보는 10.9%, 중도정당 민주운동의 프랑수

아 바이루 후보는 9.2%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투표율은 예상을 깨고 80.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투표 결과에 대해 올랑드 후보는 고향 뮈시(市)에서 “극우적 계략에 빠진 사르코지의 대통령직에 재제를 가한 것이지 그의 발언들을 부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프랑스의 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이민자 통제와 직업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오는 5월6일 올랑드 후보와 사르코지 대통령을 놓고 대선 결선투표를 치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연합뉴스



北 “대남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조선반도 무슨 일 터지면 이명박 책임”

북한이 23일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총동조는 이날 통고를 통해 “이명박 쥐XX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역적파당의 분

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혔다. 인민군은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던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특별행동의 시점을 ‘곧 개시’라고 적시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개시되면 3~4분’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등과 같이 중언부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22일 북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wa Auction' (다와옥션) featur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properties in Nam-gu and Seogwip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uctioneer.

Advertisement for 'Ocheonjeong Investment Research Institute' (오천경매투자연구소) offering real estate investment services, including auction participation and land acquisition.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specifically focusing on apartment and land sales in Gwangju, with contact details for a real estate agent.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highlighting the sale of commercial buildings and land,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a real estate agent.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offering a wide range of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contact details for a real estate agent.

Advertisement for 'Chigyeol Gonginjonggasa'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providing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including property sales and rental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gent.